전략

리서치센터장 김장열
jay.kim1007@gmail.com
02-3779-3531

김장열의 '요것만'

급할수록 돌아가라 (Haste makes waste)

8월 5일 코스피는 -2.6%로 1900대 중반으로 주저앉았고 코스닥은 사이드카 발동까지 되며 -7.5%로 폭락했다. 1) 미.중 무역 분쟁, 2) 한국과 일본의 전면전 양상, 3) 원화약세 (1216원/달러로 치솟아), 4) 위안화 약세 (7위안/달러 돌파). 그리고 한국은 바이오주의 거품 논란 속 폭락 가세까지.

통상 이 정도 급락이면 향후 1-2주내 자율 반등이 나왔다.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은 있다. 물론 오늘 밤이라도 트럼프가 트위트로 무슨 코멘트 (미.중 무역 협상 관련)를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하지만, 미중 무역 전쟁은 미국의 관세 추가부과 예정 발표 (9월 1일부터)로 중국은 위안화 약세를 용인하게 만들 고 있고 한일 무역분쟁은 전면전 양상으로 전개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리스크의 장기화 가능성이다.

8월말 MSCI EM 리밸런싱 예정까지 원화약세를 더 촉발할 가능성까지. 중소형주, 코스닥주 수급은 더욱 악화될 우려를 오늘 일제히 반영시킨 분위기이다.

여기서 잠깐 미중 무역협상의 양측의 태도를 살펴보자. 시진핑은 양보할 것도 같다가 아니고 시진핑은 침묵하는 듯 참모진은 성토도하고 한편 예측도 하고 미국의 반응도 떠보고. 트럼프가 추과관세 부과 발동하니 국유기업에 미국산 농산물 수입 금지 지시로 맞불을 놓기도 하고. 여우같이 행동한다, 유연하게 변화한다. 그렇게해서 상대 (미국)가 함부로 판단하기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이 모든 것이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조금이라도 전략/전술의 강화를 위해 시간을 벌어야하기 때문이다. 한편, 미국은? 트럼프의 럭비공같은 행동은 예측불허이고 이것이 지금까지 중국을 적지않게 당황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여우 Vs 럭비공의 대결이다.

한일 분쟁은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의 경제침략?) 어떠한가? 일본이 오래전부터 (최소한 수개월 전 또는 연초부터) 준비해온 시나리오/전략에 바탕을 둔 공격으로 분석하는 것이 컨센서스이다. 7월 이후 성토와 경고와 대기업 총수/사장의 일본행 출장, 미국에 읍소, 그리고 오늘 "평화경제로 단숨에 일본을 따라잡는 다"는 선언까지. 일본입장에서 예상할 수 있는 수순과 반응으로 보이지 않는가? 사태가 긴급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급할수록 돌아가라 (Haste makes waste)라는 말을 기억하고 조금은 뻔하지 않은 모습과 행동을 전략적으로 숙고하고 차근 차근 보여야하지 않을까? 그것이 시장이 바라는 것이다.

지난주 금요일 우리는 이러한 리스크 요인의 중소형주 수급에 미칠 영향을 고려, 중소형주=>중대형주로 포트폴리오를 전환했고 현금 비중도 40=>50%로 높였었다. 시장 반등은 누군가 조금의 긍정적 코멘트, 실마리를 찾기위한 모습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 그 강도와 지속성은 당분간 낙관할 수 없다. 애심종목도 더 중대형주 중심으로 압축한다.

<애심종목>

편입 : SKC코오롱PI

편출 : 테스나, 에이스테크, 종근당, 보령제약

섹터	종목명	코드	시가총액 (억원)	주가 등락률 (1W, %)	주가 등락률 (1M, %)
IT	삼성SDI	006400	167,098	6.1	1.9
IT	LG디스플레이	034220	46,337	-17.5	-25.6
IT	네패스	033640	6,376	-5.8	-16.6
IT	덕산네오룩스	213420	4,094	-0.3	-0.9
IT	SKC코오롱PI	178920	9,500	21.4	4.7
통신장비	케이엠더블유	032500	19,642	-1.6	20.2
SW	NAVER	035420	227,442	-0.4	14.1
제약	동국제약	086450	5,691	-5.6	0.0
유틸리티	한국전력공사	015760	172,046	-4.1	3.1
건강기능식품	콜마비앤에이치	200130	7,962	11.8	0.4
자동차	현대모비스	012330	231,119	0.0	3.9
게임	엔씨소프트	036570	114,561	7.6	8.8
현금비중	50%				
KOSPI				-4.1	-7.8
KOSDAQ				-7.9	-17.9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김장열)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

구분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 개월)	투자등급	적용기준 (향후 12 개월)	투자의견 비율	비고
Sector (업종)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 투자등급 3 단계	Overweight(비중확대)			
		Neutral (중립)			
		Underweight (비중축소)			
Company (기업)	투자등급 4 단계	Buy (매수)	+15% 이상	61.5%	투자의견 비율은 의견 공표 종목들의 맨 마지막 공표 의견을 기준으로 한 투자등급별 비중 (최근 1 년간 누적 기준, 분기별 갱신)
		Hold (보유)	-15% ~+15%	1.1%	
		Sell (매도)	-15% 이하 기대	0.0%	
		Not Rated(투자의견없음)	등급보류	37.4%	
		합계		100.0%	